■■■ 추억의 합격기
[1987년도 제31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합격]

고독과 고뇌의 끝에

이 찬 우

『학력사항』
-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국장
-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과장
-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과장
-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파견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 1987년도 제31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 수석합격

Ⅰ. 대학생활과 고시에의 입문

1. 고시를 보게 된 동기

늘 왜 고시를 보게 되었으냐 하는 질문에 접하게 되면 당혹감이 먼저 앞서게 된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나쁜 동기를 갖고 묻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때문에 대답을 주저 하기 때문이다.

고시를 보게 된 동기는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과 대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나의 장래의 희망은 법관이었다. 그 이유는 그 시기에 법관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주위분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 자신의 희망이요. 목표로 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꿈은 학력고사 점수에 의해 산산히 깨지고 말았다. 물론 타 대학교의 법과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될 것이나 그 당시 그런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학과 입학하게 되었고 더정쩡하고 전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생활이 그로 말미암아 흥미롭지도 않았다. 첫 학기의 경우에는 보상심리의 발동으로 과 공부에 집착하고 여러 행사에 자주 참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대학생활 전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재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생각끝에 대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기로 마음 먹었다. 그것이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이었다. 정치학과생인 이상 이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행정고시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것이 나의 법관에 대한 소망이 행정고시에 대한 도전으로 置換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잇다. 그러나 나는 이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 내가 고시에 전념하게 된 이유는 學內생활과도 관련이 있다. 1984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어 학생운동이 활발하였으나 학생운동에 참가할 용기는 없었다. 친구들 중에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먼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민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민중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시에 전념하게 된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다. 여기서 나는 생활신조를 '성실'로 삼았고, 고시에의 도전도 이의 방편이었다.

나는 대학생활 전체를 통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해 무진 노력을 기울렸다.

2. 대학생활과 고시입문-고시 이전

1학년의 대학생활은 나에게 흥미롭지 못했다. 그야말로 첫 학기의 생활은 방황의 연속이었다. 보상심리로 학과공부는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이 보내는 그런 유쾌하고 재미있는 학과공부는 게을리 하지 하였으나 다른 친구들이 보내는 그런 유쾌하고 재미있는 생활은 갖지 못했다. 남들이 많이하는 미팅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으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오히려 이를 피하기까지 했다. 또 친구를 사귀는데 적극적이지 못해 첫 학기 동안 사귄 친구라고는 별로 없었으며 처음 생활하는 객지에서의 삶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어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독을 경험하면 성숙해진다고 하나 나에게는 갖는 想念을 불러일으키기만 했다.

그러나 대학생활을 이렇게만 보낼 순 없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필요를 느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지리산 여행이었다. 여름에 간 지리산은 고독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모든 도전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리고 하산 할 때 생긴 상처는 나에게 사람은 결코 혼자서 있지 않으나 그 자신 내면은 혼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혼자서의 자기의 또 다른 면과 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래서 2학기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학과에도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인 영어공부를 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오던 경제학을 알기 위해 경제학원론을 부담없이 소설 읽듯이 읽은 것이 전부였다.

2학년이 되어 혹시 시험삼아 1차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1차시험을 위해 객관식 문제집을 사두었으나 결국 나이 제한으로 시험을 못 본다는 것을 알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팽개쳐 버리는 헤프닝을 연출한 적도 있다. 주로 2학년 때에는 학과공부를 충실히 했으며 이 대문에 좋은 학점도 받을 수 있었다.

Ⅱ. 수험과정

1. 제30회 1차시험

2학년의 가을이 점차 짙어져 초겨울이 되자 제30회 1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 본격적인 1차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미 영어는 공부해 오던지라 시간을 조금씩 할애하여 틈틈이 보기로 하고 헌법, 민법총칙, 행정학을 차례로 1회독 하였다. 민법총칙의 경우 강의도 들었고 현실과 밀접하게 결부시켜 이해하려 했으므로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헌법의 경우 기본적인 법적 양식이 없는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전과 헌법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 먼저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체계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결국 처음에 김철수저의 책을 보다 권영성저의 기본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행정학의 경우 1차시험의 출제범위를 모두 망라하는 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권의 기본서로는 부족함을 느껴 유훈저와 박동서저 두 권을 보았다.

이렇게 대충 1회독이 끝나고 2회독에서 심화학습을 거친 다음에 문제집을 보았다. 문제집을 통하여 1차시험의 출제경향과 중요부분을 파악하여 다시 기본서를 이에 중점을 두어 통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기본서 3회독, 문제집 1회독이 되자 2월 초순이 되었다. 이때 외시 1차시험의 발표가 있었는데 친구 민식이가 합격하였다. 그에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움 반, 나에 대한 걱정 반, 여러 감정이 교차됨을 느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월 이후는 각 과목 기본서와 문제집을 한 조로 짜서 rotation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었으나 점차 속도가 빠라졌다. 3월에는 국사도 시작하였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영어였다. 꾸준히 봐 왔다고 생각했으나 rotation하는 동안에 틈틈이 할애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된 영어는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풀어본 결과 그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다. 점수가 70점 이상이 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영어에 특별히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한 문제집을 하나 사서 조금씩 보도록 노력했다.

rotation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집을 한 권씩 보강하여 보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 4월말의 과선배 이재호의 분신은 나에게 충격과 함께 고뇌를 던져주었다. 이런 감정을 대충 정리하고 친구와 함께 원서를 제출하러 갔다. 제출 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낙방한다는 定說(?)때문에 술을 안 마실 수 없었다.

시험당일 아침을 거르고 시험장으로 가는 길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이는 객관식과 큰 시험에 약하다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1교시 시험을 좀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 2교시에는 더욱 분발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왔다.

2. 제30회 2차시험

처음에는 1차시험을 치르고 난뒤 2차시험 공부를 시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감과 발표에 대한 초조감이 그렇지 못하게 하였다. 학교도서관에 다니면서 시간의 반은 핑계를 대고 논 것 같다.

1차시험 합격을 확인하고 2차시험은 분위기와 답안작성을 연습하기 위해 응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부를 해 놓은 것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치를 순 없었다. 그래서 각 과목당 10문제를 무작위 추출하여 그것만 공부해 갔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개념조차 몰라 수필을 4장 쓴 기분이었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었으나 10문제를 추려 놓은 것이 아까워 끝까지 치렀다. 채점위원님들에게 부담만 안겨 준 셈이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놀다가 9월이 되어 내년을 대비한 계획과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2차시험 발표에 대한 염치없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뜻밖에도 점수가 괜찮은 편이었다. 행정법 과락에 52.33점이었다(합격점 54.04점). 이때 고시를 우습게 보려는 마음이 일어났으나 "자만과 방심은 나의 적이다."라는 말을 책상앞에 써 놓고 마음을 추수리기 시작했다.

3. 제31회 2차시험

1986년 연말까지 전과목 1회독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택과목은 좀 공부하기 수월하다는 심리학과 지난 2차시험 때 성적이 좋았던 정책학을 선택하였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겨지는 행정법과 경제학을 먼저 시작했다. 처음에는 sub-note를 할 작성이었으나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어 이를 포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만 요약 정리하였다. 다른 과목들은 sub-note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읽으면서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행정법의 경우 기본서를 김도창저로 시작했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박윤흔저로 바꾸고 연말에 가서야 이해의 틀을 세웠다. 경제학은 미리 공부해 놓은 것과 강의의 도움으로 어려움은 그리 느끼지 않았다.

행정학은 1차시험에서 본 책을 중심으로 1차시험과는 달리 전체체계를 위주로 읽어 나갔다. 이 때 강의노트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정치학은 내가 정치학도여서 조금 수월하기는 했으나 고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학교강의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극찬저를 기본서로 하고 최광해·송영철의 문제식 정치학을 準基本書로 삼았다.

심리학은 강의교재였던 8人공저의 책과 정양은저의 책을 주로 보다 부족함을 느껴 Hilgard·Atkinson의 책으로 보충했다. Hilgard·Atkinson의 책이 부피가 커 먼저 두려움을 가지게 되나 워낙 책이 쉽고 재미있게 씌여져서 오히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심리학은 시중에 문제집이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문제집을 편집하기로 하고 考試界, 考試硏究 2년분 예상문제 답안을 중복되는 것은 피하여 편집하였다. 이것이 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정책학은 먼저 안해균저를 한 번 보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 과목도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집을 편집했다.

이렇게 1회독이 끝난 뒤 각 과목 문제집을 하나씩 1987년이 들어선 뒤부터 읽었다. 그리고 나서 기본서와 문제집을 한 조로 삼아 과목순서대로 rotation하면서 읽어나갔다. 문제집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의 참고도서로 생각하고 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단권화 작업을 하는데 비해 나는 특별히

단권화 작업은 하지 않았다. 여러 참고도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 사이사이 끼워 넣었지만 막판까지 그 책들을 손에서 떼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방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좀 귀찮더라도 단권화 하는 것이 막판에 손쉽게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이 때문에 막판에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rotation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보충해 나갔다. 최소한 기본서 내지 참고도서 두 권, 문제집 두 권을 본다는 계획하에 한 권씩 보태졌다. 이렇게 해서 과목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국제경제학을 따로 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4월말이 되어서야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았다. 5월까지는 대충 네 번의 rotation이 끝났다. 이 때 주로 학교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옆에서 늘 격려해 주던 H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6월이 되고 1학기 학사일정이 거의 끝나자 지금까지의 공부를 정리, 마무리하여야 했다.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정리해 나갔다. 날씨는 무덥고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식사가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 그리고 개헌을 위한 6월항쟁이 거세어지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매일 신문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으며 TV뉴스를 매 시간대마다 보고 울분과 격정에 휩싸여 지냈다. 이 때 마음에 위안을 준 것은 음악이었다. FM방송을 거의 하루 종일 켜놓고 음악으로부터 마음의 평온을 구했다. 또 이 여름에 무엇보다 걱정이 된 것은 건강이었다. 운동부족으로 소화가 되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렸다. 이 때 옆에서 형님과 주인집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매일매일의 산책으로 체력을 유지하려 했다.

정리의 방법은 별다른 것이 없었다. 여태까지 해 오던 rotation을 계속하면서 책을 읽을 때 내가 출제위원이라 생각하고 매 chapter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outline을 작성하였다. sub-note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7월이 중순에 접어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 이 때부터 목차를 보면서 그 내용을 연상하려고 노력했으며 outline 작성은 계속해 나갔다. 초조해던 그 때, 같은 2차시험 공부를 하던 고등학교 선배 유순현 형과 과 친구 병일의 격려는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8월에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했으며 2차시험에 두려운 마음으로 응시하게 되었다. 1교시 국민윤리시험은 첫 과목인 데다가 별로 심화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떨렸다. 다행히 큰 문제가 행정학적이고 시사성이 있는 문제여서 시사성에 역점을 두고 썼다. 쓰는 방법은 먼저 다섯장을 접어서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작은 문제 둘을 먼저 적고 나머지 1시간을 큰 문제에 투자했다. 이 방법은 나머지 전 과목에도 적용했는데, 공부한 것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온 것 같다(69.33점).

빵으로 대강 점심을 떼우고 행정법 시험을 치렀다. 행정법이 계속 총론중심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구제법이나 각론에서 나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오히려 이 부분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자 약간 당황은 했으나 그런대로 쓴 것 같았다(70점).

다음날 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해 피곤했다(평소 최소한 6시간은 잤다).

행정학의 큰 문제는 예상 밖 이어서 당황했는데 시험이 끝난 뒤 다른 수험생에게 물어본 결과 예상했던 문제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시험을 망쳤다는 기분이 들었으나 작은 문제는 그런대로 썼으므로 희망은 가졌다〔그런데 의외로 점수는 잘 나왔다(72점)〕.

경제학은 다소 자신이 있었고 형님이 경제학과 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형님이 찍어준 문제중심으로 막판에 대비했는데 찍은 문제 그대로 나와서 자신있게 썼다. 그러나 너무 잘 쓰려고 성급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리 점수는 좋지 못했다(63.66점).

정치학이 세 번째 날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험장 분위기가 돌변했다. 그 때까지 대체로 무난했으나 정치학의 큰 문제가 비 정치학도로서는 쓰기 힘든 문제였다. 그래서 과락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러나 다행히 전공이 정치학이어서 강의 시간에 들은 것을 종합해서 써 내려갔다. 작은 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64점).

심리학은 너무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 솔직히 실망했다. 이 시간이 가장 여유가 있었으며 시간까지 남았다(70점).

그런데 복병은 정책학에 있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주로 정책형성과정에서 나왔으나 이번에는 정책가치론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나와 큰 문제를 구성하는데 애를 먹었다. 다행히 작은 문제는 쉬운 편이었다(67.66점).

속시원하면서도 허탈한 기분으로 시험장을 나왔다. 4일간의 시험 기간 동안 피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밤을 꼬박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하루종일 잤다. 비몽사몽간에 오대양사건의 뉴스속보를 들으면서.

4. 새로운 공부

시험이 끝난 뒤 지금까지 못느꼈던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압축해서 얻으려 했다.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즐겁고 유쾌했다. 그러나 합격발표 직전에는 초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합격을 확인하던 그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때의 경솔함으로 며칠뒤까지 내야한다는 서류제출공고를 보지 못해 마감일까지 허둥댔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스운 생각마저 든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때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3차면접 때 같은 조에 과(科) 동기가 있었는데 그와 나에게 똑같은 질문내용이 있었다. "시험 잘 친 것 같애?" 이를 듣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 친구가 발표 전 자기점수가 바닥에 가깝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중에 그 친구는 불합격했다. 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발표 후 점수를 알아본 결과 뜻밖이었다. 평균 68.09점으로 일반행정직 수석이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전체수석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건방진 생각도 들었으나 이내 곧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Ⅲ. 공부방법

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내 공부방법은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이 매우 많을 것이다. 단권화하지도 않았고 sub-note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합격기를 볼 때마다 불안해지곤 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사람에게는 개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나의 공부 방법을 권유할 생각은 없으

나 도움이 될까해서 적어본다.

2. (1) 먼저 책을 부담없이 읽고 책내용에 대한 orientation을 갖는다. 그리고 나서 심도있게 읽는다. 내 경우 한 과목을 5일이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rotation을 한다.
   (2) 매회 rotation을 할 때마다 한 권씩의 책을 더해 나간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한다.
   (3) 근거리 사격에 집착하지 않고 원거리 사격에도 역점을 둔다. 즉, 고시과목 그것만 하지 않고 인접과목, 참고도서를 많이 보아둔다.
   (4)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는다. 그리고 현실과 결부시켜서 이해한다. 특히 정치학의 경우가 그렇다. 원래 내용이 현실과 먼 기분을 주니 이를 결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자신을 갖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학과공부에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방법을 기초로 하여 공부하였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Ⅳ. 새로운 고뇌를 시작하며

고시공부라는 것이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려는 방편인 만큼 그 과정속에서 이것만이 길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수많은 길, 수 많은 방법이 있었으나 나는 이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이제 나의 길을 돌이켜 보고 또 다시 길을 선택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그 동안 혼자서 있었으나 혼자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실천해 준 주위 친구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